

[기획] >> 3면
서울캠 학생총회

[사진기획] >> 4면
퀸쿠아트리아

[심층] >> 5면
총장과의 대화

[심층] >> 7면
글캠 학생회와 학교 측 면담

서울캠퍼스 2019 상반기 전체학생총회 성사



지난달 21일, 서울캠퍼스 2019 상반기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이날 1030명의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학기 만에 성사된 총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자.

▶ 3면에서 계속

글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사진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송도부지 1단계 개발공사 기공식 열려



▲송도부지에서 열린 1차 공사 기공식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인천 송도부지 1단계 개발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은 관선주 서울캠퍼스 행정지원처장이 사회를 맡아 △개식사△사업개요 및 경과보고△내외귀빈 소개 순으로 진행했다. 이후 △김종철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격려사(이하 김종철 이사장)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 인사말(이하 김인철 총장) △고남석 인천광역시 연구구청장(고남석 연구구청장)의 축사 △시삽식 행사 및 사진촬영△폐식사가 이어졌다.

김종철 이사장은 “이번 기공식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인철 총장은 “인문교육중심인 우리학교와 첨단 국제도시 송도가 만나 연구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고남석 연구구청장은 우리학교가 송도 국제도시에 자리 잡음으로써 △외국인 학생 학습공간 마련△외국인들의 기초생활 및 소통 개선△평생

교육 등 송도 연구의 기대효과를 언급하며 명실상부한 송도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밝혔다.

우리학교 송도 부지는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3210평이다. 송도 부지는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다목적 강의동인 ‘외대국제지원센터’와 15개의 강의실과 △행정동△전시실△소강당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송도부지 인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Samsung-biologics)가 위치해 있어 산학연계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학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글로벌캠퍼스 부총장과의 대화, 레지덴셜컬리지에 대해



▲레지덴셜 컬리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조기성 부총장

지난달 22일 오후 4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부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자리에 참석한 조기성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이하 조기성 부총장)은 다음 해 시행될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레지덴셜 컬리지는 공동체적 기숙형 대학 모델로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차별화된 전략 도입을 통해 우리학교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도입됐다. 레지덴셜 컬리지가 도입되는 단과대학은 △경상대학교공과대학△자연과학대학이다. 해당 단과대학 신입생들은 1년 중한 학기동안의

무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기존에 배정돼 있던 약 50%의 재학생 기숙사 입사인원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신입생 수용인원 내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 개의 단과대학을 바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확대 운영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인 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 씨는 "부총장과의 대화 행사에서 중요한 사안인 레지덴셜 컬리지를 다루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길 바랐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서 정리해 학생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겠다"며 "레지덴셜 컬리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면밀히 조사하고 학교 측과 논의해 많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기성 부총장은 "우리학교 발전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찼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번처럼 학생들과 함께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핸드볼부 교내핸드볼대회 50회 기념행사 열려



▲핸드볼부 단체사진



▲교내 핸드볼대회 수상자들



▲교내 핸드볼대회 수상식 장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핸드볼부(이하 핸드볼부) 교내핸드볼대회가 50회를 맞이했다. 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과 오바마 홀에서 열렸다. 대회가 끝난 뒤엔 사이버넌 대강당에서 폐회식 및 기념식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선 교내 핸드볼대회 시

상식과 핸드볼부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손봉기 핸드볼부 동문회장은 "교내 핸드볼대회가 동문 간 화합의 장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생활체육 핸드볼 역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효준(사회·행정 14) 핸드볼부 주장은 "교내 핸드볼

대회는 재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도움으로도 진행된다"며 졸업생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어 "교내 핸드볼대회 50회를 맞게 돼 감회가 남다르며 주장까지 맡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교내 핸드볼대회가 계속 이어져 학생들에게 재밌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핸드볼부는 이번 달 진행되는 제32회 서울특별시 시장기 핸드볼 선수권대회와 8월부터 시작되는 2019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2부(이하 대학 2부 리그)에 출전한다. 해당 대회엔 우리학교를 포함한 △경희대△서울대△홍익대△상명대 등 7개 대학이 참가한다. 이에 대해 고효준 핸드볼부 주장은 "참가 대학 대부분이 체육대학이라 경쟁이 치열하나 부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 2부 리그는 이번 해 10월까지 진행되므로 끝까지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서울캠퍼스 가요제 행사 개최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 축제기간을 맞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FBS 외대교육방송국(이하 FBS)은 '도심을 벗어난 일탈'이란 가요제를 진행했다.



▲가요제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정희인 진행부장과 참가자들 (출처: FBS)

이번 가요제에서 1위는 'Another day of sun'을 부른 최수지(상경·경영 17) 씨가 차지했다. 이어 2위엔 'no 눈치'를 부른 전동현(일본·일어문 17) 씨가, 3위엔 'Bang bang'을 부른 김지연(LD 15) 씨와 '행'을 부른 박한솔(아시아·아랍어 15) 씨가 선정됐다. 이번 가요제는 심사위원 평가 50%와 실시간 투표 50%로 점수를 책정했다. 예선을 통과한 10팀 중 △1위 한 팀△2위 한 팀△3위 두 팀, 총 네 팀을 시상했다. 총 상금은 100만원으로 △1등은 50만 원△2등은 30만 원△3등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가요제를 관람하던 학생들에게 경품추첨을 통해 △에어팟△스타벅스 상품권△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등 많은 상품을 제공했다.

한편 FBS 71기 박은영(사회·미디어 16) 기사는 이번 가요제 홍보부총 책임자로서 홍보콘텐츠 제작과 경품수령 등 원활한 행사 진행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우리학교 장모네 EU센터가 공동주최한 2019 모의유럽연합 개최돼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오바마홀에서 △우리학교 장모네 EU센터△연세대 EU센터△고려대 EU센터가 주관 유럽연합 대표부의 후원을 받아 공동주최한 '2019 모의유럽연합'이 개최됐다. 행사는 김시훈 우리학교 장모네 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번 행사엔 우리학교를 포함한 △고려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 등 국내 대학생과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어떻게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동 이민 정책을 동의할 수 있는가'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오전엔 강나경 유럽의회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 뒤 대표단 전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에 진행된 본 회의에선 결의안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해당 의제 결의안은 △불법이민자방지대

책△국경 보안 강화△상호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섯 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의안은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학생과 유럽 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렸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한편, 폐회식 및 시상식에선 윤석만 서울캠 부총장과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 대사(서울시내 8개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어떻게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동 이민 정책을 동의할 수 있는가'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오전엔 강나경 유럽의회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 뒤 대표단 전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에 진행된 본 회의에선 결의안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해당 의제 결의안은 △불법이민자방지대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포럼', 세계 최대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등재돼

한국통번역학회가 출간하는 통번역 국제학술지 '포럼(FORUM)'이 지난달 세계 최대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됐다. 최정화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는 포럼 지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정연 우리학교 교수가 편집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해 이번 등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써 포럼 지는 아시아 최초로 통번역학분야 국제전문학술지 반열에 올랐다. 스코퍼스 심사위원회는 △명확한 초록△높은 언어 수준△학술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학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컨텐츠△높은 가독성

등을 이유로 포럼 지를 등재했다. 한편 최정화 교수는 △이태형(한양대) 교수△이창수(우리학교) 교수△임향옥(우리학교) 교수△김대진(서울과학기술대) 교수△김연희(동덕여대) 교수△박혜경(한동대) 교수 등과 공동으로 한국통번역학회를 창립했으며, 2003년에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포럼 지를 창간했다. 포럼 지는 2016년부터 세계 최고 통번역학 전문출판사인 존 벤자민스(John Benjamins)에서 영어와 불어로 연 2회 출간되고 있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독일어과 주최, 영화 상영 세미나 열려

이번 달 1일 오후 1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루시아 코메스커(Lucia Komosker) 우리학교 독일어과 교수가 주최한 영화 상영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인 로버트 보슈(Robert Bosch GmbH) 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선 스위스계 독일인 바바라 밀러(Barbara Miller) 감독의 작품인 #페미일 plezier(Female Pleasure)가 상영됐다. 해당 작품은 여성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로, △독일 △미국 뉴욕△소말리아△인도△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 속한 여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영화 상영 뒤엔 참가자들과 영화의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이태희(서양어·독일어) 씨는 "영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며 "참여자들이 여성 이슈에 대해 알고 생각하는 시간이 돼 좋다"고 전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던 주제라 행사 준비를 하게 됐다"며 "준비과정부터 진행까지 좋은 경험이 돼 만족스럽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루시아 코메스커 교수는 "각자 다른 국가 출신임에도 여성의 억압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전체학생총회 성사, 1030명의 목소리가 모여 이뤄낸 결실

지난달 21일 오후 7시, 우리학교 잔디광장에서 제53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도 아래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정족수는 서울캠퍼스 전체 학생 9300여 명의 10%인 930명이었으며, 총 1030명이 모여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보고 안전△공유 안전△논의 안전△기타 안건으로 구성됐다. 지난 학기 서울캠퍼스 하반기 정기총회가 임시총회로 남겨졌던 가운데 성사된 이번 총회의 의의와 이날 이뤄진 주요안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학기 정총 성사의 요인은?

지난해 10월 2일 진행된 '2018년도 하반기 총회'는 전체 재학생의 8%인 총 690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임시총회로 남겨졌다. 제52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푸름은 △SNS 홍보△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총회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으나 시기와 환경을 섬세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 탓에 학생들은 야외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고 학생 측 자리에 조명 없이 배포된 자료집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총학은 담요를 나눠주고 조명을 학생 측 자리로 돌리는 등 문제에 대처했으나 참여를 도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해 상반기 총회 성사를 위해 비대위는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지난 학기와 같이 SNS와 같은 소통 플랫폼에 총회 관련 정보와 안건에 대한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학교 정문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쌀쌀한 날씨를 대비해 담요를 나눠줬다. 안건 역시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무게 있는 사안으로 선정했다. 재학생의 총장선출권을 보장하는 일명 총장직선제와 학사제도개편에 학생들의 의견을 더할 수 있는 학사제도협의회를 안건에 포함해 참여도를 고조시켰다. 동시에 총회 개최 7일 전부터 비대위는 이동학생회를 열어 논의안건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를 파악했다. 집계 결과, 총 330명 중 △1위 학사제도 개선위원회(46%)△2위 총장선출권(41%)△3위 안전협의(13%) 순이었다.

비대위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위 안건들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새로운 홍보 방법으로 컵홀더 이벤트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당일 비대위가 지정된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총회 스티커가 부착된 컵홀더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비대위는 교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총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총회 종료 직후에는 인권주간 행사로 영화 '1987'을 자막과 장면해설이 있는 배리어프리 버전(barrier free version)으로 상영해 시청각장애인 학생들을 포함한 비장애인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상반기 정총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총회는 본래 예정돼 있던 시간에서 약 30분이 지난 오후 7시 30분경 952명으로 개최됐다. 이날 잔디광장에 각 단과대·학부별로 지정된 좌석과 자율석을 마련해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했다. 총회가 시작되자 지난날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파루크 무미노브(Farukh Muminov) (상경·국통 16) 씨와 무탈 울다셰브(Mutal Yuldashev)(상경·국통 16) 씨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들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명의 학우를 추모했다.

이날 총회는 △3개의 논의 안전△2개의 공유 안전△2개의 보고 안건으로 구성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논의 안건은 △학생참여 민주적 총장직선제 협의체 마련△모든 자치공간 24시간 개방 및 안전예산 확충△학사제도개선위원회 신설이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학생 참여 민주적 총장 직선제 협의체 마련'이었다. 우리학교의 총장은 정교수가 모인 '교수협의회의' 교수총회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재학생들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실제로 2017년 진행된 실태조사결과와 달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모의학생투표에서 유기한 후보자가 1위를 차지했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의 총장 선출방법은 교수들의 이익을 우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은 '모든 자치공간 24시간 개방 및 안전예산 확충'이다. 안전협의회는 학교 안전 관련 안건 상정 및 의결을 담당하며 24시간 자치공간개방을 위해 반드시 설립돼야 할 기구다. 현재 우리학교는 스마트 도서관 공사로 학습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과학관과 국제학사를 24시간 개방해 부족한 면학 공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라온지가 위치한 지하캠퍼스와 사범대학의 자치공간이 위치한 교수학습개발원 지하는 24시간 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한 학습공간을 충당하기엔 어렵다. 비대위는 "학교가 24시간 개방 자치 공간을 늘려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협의회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논의안건은 '학사제도개선위원회 신설'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학교의 전체 강의 수는 100개 이상이 줄었고, 20명 이하의 강의는



▲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에서 학우들이 안건을 듣고 있다.



▲이선범 서울캠퍼스 비대위원장(좌측)과 송민지 서울캠퍼스 부비대위원장(우측)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들이 늦은 시간까지 잔디광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500개 이상이 사라졌다. 비대위는 재학생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축소할 학사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될 공식적인 창구로서 '학사제도개선위원회' 설립을 제시했다. 학사제도개선위원회는 양 캠퍼스의 학생대표와 교무처 담당자들이 모여 학사제도 변경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한편, 지난해 제 52대 총학생회 푸름은 '학사제도협의회의' 설립을 위해 교무처와 회의를 진행했으나 단발성에 그쳤다.

공유 안건은 '송도 캠퍼스 활용의 건'과 '학과별 학점 조정 통보의 건'이다. 첫 번째 공유 안건은 '송도 캠퍼스 활용의 건'이었다. 현재 송도 캠퍼스는 부지 활용계획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무조건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송도캠퍼스 1차 기공식이 진행됐다. 이선범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해당 행사를 알리며 지속적으로 송도캠퍼스 관련 진행 상황을 재학생과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두 번째 공유 안건은 '학과별 학점 조정 통보의 건'이었다. 지난달 첫 주, 학교 본부는 학과별 학점 조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통보 사항에 따르면 학과별 강의 축소는 학과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며 교양강의가 줄어든 데는 강사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학과별 학점 조정에는 시간강사 고용 문제가 맞물리며 그들의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강의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학생수요가 없는 강의를 줄이고 질 좋은 강의만 남기는 제도는 자칫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 안건은 '2019년 제53대 총학생회 비대위 상반기 활동계획'과 '2018년 제52대 총학생회 푸름 하반기 결산보고'이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2019년 53대 총학생회 비대위 상반기 활동계획'이다. 비대위는 △중앙집행위원회 모집△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월호 추모△65주년 개교기념식 참석 등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학내 노동자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제52대 총학생회 푸름 하반기 결산 보고'이다. 정총 진행에 앞서 비대위는 자료집과 함께 결산안을 배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결산안에는 지난해 △하반기 교비△기부금 및 자치회비 환수금△행사별 활동 등 다수의 활동과 관련된 결산이 기재됐다. 이 외에도 교내 외부인 출입 문제와 부족한 엘리베이터 관련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재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52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와의 인터뷰

Q1. 이번 학기 상반기 학생총회가 성사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A1.(이선범 비대위원장) 학생 사회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학교가 비대위 체제라는 점에서 활동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는 끊임없이 학우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번 총회 성사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학우들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총회는 학생 자치에 대한 학우들의 열망과 관심을 환기하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우리학교 학생 자치가 죽지 않았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동시에 겸손함을 갖고 총회 당시 나왔던 학우들의 의견이 실현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A2.(송민지 부비대위원장) 2017년 비대위 당시 총회 성사가 실패했고 그전에도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총회 성사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다소 위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성사됐고 학생사회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서로의 결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Q2. 학생사회에서 총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2.(이선범 비대위원장) 이번 해부터 '정기총회'라는 단어가 폐지되고 '학생총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해 학생총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가운데 총회 성공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정기적으로 총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총회가 성사됨으로써 우리학교가 학생자치에 이끌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회는 학내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학교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자리입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 학교 당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 총회를 통해 학생자치에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Q3. '참여와 관련해 재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A3.(송민지 부비대위원장) 이번 학생총회는 총 세 가지 논의 안건을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논의안건인 안전협의회의 설립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비대위는 부족한 우리학교 공간을 낭비 없이 학우들을 위해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국제학사마저 24시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학우분들에게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캠퍼스 축제 '퀸쿠아트리아'

이번 달 22일 밤부터 24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축제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의 이름은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여신인 미네르바를 기리던 고대 로마의 축제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기간 동안 서울캠퍼스에서는 △학과 부스△어학당 부스△본관 앞 포토존△DJ파티△연예인공연△FBS 가요제△미니버스△푸드트럭△초

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됐다. 전야제부터 24일, 25일에 걸친 축제 기간 동안 싸이와 리듬파워가 우리학교를 방문해 공연을 펼쳤고 각종 동아리 및 개인이 무대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월드뮤직페스티벌 공연 중인 아랍어과 학우들



▲전야제 국제학사 빔 프로젝트



▲와인 동아리 아상블라주 부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과부스



▲리허설 중인 글램 동아리 부원들



▲스페인어과 학과부스



▲학과 부스 홍보중인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우들



▲네덜란드어과 학과 부스 및 공자학원 홍보부스



▲잔디광장에서 무대를 감상중인 우리학교 학우들



▲운동장 메인무대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중인 비상대책위원회



▲초대가수 리듬파워



▲DJ 파티



▲초대가수 싸이



▲HUFSTAGE 공연중인 JANE 동아리 부원들



▲축제기간 우리학교의 야경

총장과와의 대화, 여러 학내 안건을 다루며

지난 22일 수요일 오후 4시, 서울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도서관 간담회 및 총장과와의 대화'가 열렸다. 행사는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이하 학생처장)과 송민지(일본·일어문 17) 부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여기엔 김인철 총장(이하 총장)을 비롯해 스나민구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박선주 행정지원처장(이하 행정처장)△최승필 기획조정처장(이하 기초처장) 등이 자리

했다. 행사는 △행사 소개△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린 학우들에 대한 묵념△개회사△도서관 간담회△총장과와의 대화△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총장과와의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아보자.

◆총장과와의 대화

총장 :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7년 11월 27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총장직을 시작하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결심하게 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최근 글로벌화가 완공돼 내·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스마트도서관 역시 다음 2월까지 품격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학생 총회에서 의결한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도 여러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상의하는 교학상장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 학교별 대항전인 '외경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 우리학교의 재정 위기로 인해 교비가 삭감됐는데, 이번 행사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장 :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에 대해 알게 됐을 때는 △우리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만 참여하는 구성에 아쉬움이 들어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서강대와 고려대 등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면 어떻지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선별(서양어·포르투갈 17) 비대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 현재 우리학교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학교를 기대합니다. 우리학교 동연은 총 73개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율에 비해 우리학교 동아리들은 제도적인 자치활동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지원금이 부족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산 측면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도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교류의 시가 있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시작으로 보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외경시전'은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충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조처장 :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 비상벨 장치, 교내 순찰대 등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학교에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Q. 신속되는 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연주회는 정확히 어디에서 이뤄지나요? 학습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총장 : 도서관 내부의 계단식 국제회의실에서는 각종 국제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때로는 소음이 과하지 않은 작은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방음 장치를 충분히 설치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가치



▲잔디광장에서 진행 중인 총장과와의 대화

를 창출해 내기 위해 서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도서관이 공사 중인 지금, 학생들에게 대안으로 개방된 임시도서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무거운 책을 공개적인 공간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 도난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이와 같은 학습 공간의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

학생처장 : 임시도서관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 또한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 도서관 안전 문제는 교내 건물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보안을 책임지는 인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Q. 수강 계획서엔 장애인 대필 도우미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수용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수님께선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학생처장 :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기존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필도우미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대필도우미 프로그램에 관한 요청사항이나 질문은 학생지원팀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관련해서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수님들께서 관련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Q. 학생들은 △도서관△과방△동아리방과 같은 자치공간을 애용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는 보드마카나 에어컨 필터 교체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

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시설 보수의 측면에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조처장 : 우리학교에 강의실이 워낙 많다보니 작은 문제들까지 모두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은 빠른 속도로 추가 및 보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에어컨 필터 청소는 제가 결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정된 예산이 학생 자치공간 관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교무처장 : 보통 강의실에 추가되는 물품들은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보드마카와 같은 작은 소모품들은 학종지에서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소모품 소진의 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산이 부족해 충분한 양의 마커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Q. 학생 자치 공간 24시간 개방이 실행되기 어려운 구체적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행지처장 : 본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학교에 많은 공간 중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이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분산된다면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더불어 학생 자치 공간을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귀가하지 않음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사 등 일부 집중된 곳에 한해서는 비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처장 : 제일은 가장 효율적인 곳에 사용돼야 합니다. 24시간 개방을 하게 되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과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24시간 개방으로 학생들이 얻을 효용과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 손익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방의 편익이 입증된다면 학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양 선택권을 모두 고려해보고 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장 : 학교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이 24시간 여러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24시간 개방되는 자치공간을 최대한 한 공간에 배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한 임시도서관 문제에서도 학생회와 총장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 어제 정기총회를 통해 외대학우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단순히 '총장과와의 대화' 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실현돼야 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본부는 학우들의 다양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19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9학년도 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9.4.22.(월) ~ 5.3.(금)	2019.5.20.(월) ~ 5.31.(금)
고사장 발표	5.8.(수) 15:00	6.5.(수) 15:00
면접전형	5.11.(토) 10:00 예정	6.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5.22.(수) 14:00	6.19.(수) 14:00
등록 예치금 납부	5.27.(월) ~ 5.31.(금)	6.24.(월) ~ 6.2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분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5) 학력조회동의서 부(원본)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중점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교수화관 104호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Déclaration d'indépendance de la Corée



번역
Yoo Noah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감수
Aurelien Laroulandie
한불 번역가

HK세미오시스연구센터 · 외대학보 공동기획

Nous déclarons par la présente que Joseon est un État souverain et que son peuple est indépendant. Nous le proclamons aux nations du monde sur le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hommes, et nous le proclamons à toutes les générations à venir sur le principe du droit légitime à la souveraineté. Fort de nos cinq mille ans d'histoire, c'est au nom de nos vingt millions d'habitants loyaux et unis que nous revendiquons cette indépendance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liberté éternelle de notre peuple, dans le sens de la marche de l'histoire et des changements globaux portés par l'éveil des consciences de l'être humain. Telle est la volonté céleste, tel est le mouvement de notre époque et telle est notre revendication légitime du droit à la vie de tout être humain. Rien sur terre ne peut l'empêcher, ni le réprimer.

Cela fait déjà dix ans que nous souffrons et que nous subissons l'oppression d'un autre peuple, et ce pour la première fois depuis des milliers d'années, victimes d'une politique d'agression et de coercition d'un autre âge. Combien avons-nous perdu quand nous avons été dépossédés de notre droit à la vie ? Combien notre développement spirituel a-t-il été entravé ? Combien la dignité et l'honneur de notre peuple ont-ils été endommagés ? Combien avons-nous manqué d'opportunités d'apporter une contribution singulière et unique au développement de la culture universelle ?

Hélas! Pour rectifier cette injustice de l'histoire, pour nous libérer de l'agonie dont nous sommes témoins, pour lever les menaces de demain, pour réveiller et déployer la dignité de notre pays et la conscience de notre peuple écrasé, affaibli et fatigué, pour permettre à chacun de développer le caractère auquel il peut légitimement prétendre, pour ne pas léguer un héritage honteux à nos enfants et pour laisser à la postérité un bonheur total et impérissable, il est primordial et urgent d'assurer l'indépendance de notre peuple. Aujourd'hui plus que jamais, alors que nos vingt millions de compatriotes ont une épée plantée dans le coeur et que la nature humaine et l'éveil des consciences propre à notre époque nous viennent en aide en prônant la justice et l'humanisme, il n'y a personne qui puisse nous vaincre quand nous allons de l'avoir et il n'y a rien que nous ne puissions faire quand nous reculons pour mieux sauter.

Nous n'avons pas l'intention d'accuser le Japon de manquer à ses engagements, ni de trahir les accords qu'il a signés depuis le traité de Ganghwa. Nous n'avons pas l'intention non plus de lui reprocher son manque d'honneur, quand ses savants et ses fonctionnaires considèrent notre héritage, transmis

de génération en génération depuis les temps anciens, comme un bien colonial, quand il traite notre peuple civilisé en barbare, quand il se complait dans le simple plaisir du conquérant, pas même quand il méprise les fondements de notre société millénaire et notre esprit national. Occupés à faire face à nos propres erreurs, nous n'avons pas de temps à perdre à nous en prendre aux autres. Face à l'urgence de nous préparer méticuleusement aux affaires du temps présent, nous n'avons pas de temps à perdre à punir les erreurs du passé et à chercher un coupable.

La tâche que nous nous donnons aujourd'hui, c'est celle de nous redresser et non pas de chercher à détruire les autres. C'est celle d'explorer le destin qui s'ouvre devant nous par la force d'une conscience solennelle, et non pas de jalouser et de rejeter les autres portés par les rancunes passées et les sentiments éphémères. Il nous revient de ramener les choses sur un chemin plus juste et plus honorable, en corrigeant les situations contrenatures et illogiques forcées par l'obsession pour la gloire des fonctionnaires japonais, esclaves d'idées obsolètes et de forces dépassées.

Force est de reconnaître aujourd'hui que l'union des deux pays n'a jamais été demandée par les peuples eux-mêmes et que cela a mené à une oppression généralisée, à des inégalités discriminatoires et à des données statistiques remplies de mensonges, renforçant l'immense gouffre des rancunes irréconciliables entre les populations de ces deux nations aux visions si différentes. Corriger les erreurs du passé et inaugurer une nouvelle ère d'amitié fondée sur une compréhension réelle et une sympathie réciproque, n'est-ce pas là le meilleur moyen de vaincre la colère entre les deux pays et de rendre notre monde meilleur ?

Asservir par la force ces vingt millions de personnes pleines de rancune et de colère n'aide en rien à garantir une paix durable en Asie de l'Est. Cela vient au contraire aggraver la peur et la jalousie envers le Japon des quatre cent millions de Chinois, qui sont le véritable pivot de la stabilité de la région, menant ainsi vers un terrible destin dans lequel l'Asie de l'Est dans son ensemble serait amenée à s'effondrer. Aujourd'hui, l'indépendance de la Corée n'est pas seulement la solution pour assurer aux Coréens une vie et une prospérité légitimes. Elle conduirait également le Japon à s'écarter de la pente dangereuse sur laquelle il s'est engagé et l'aiderait à assumer ses lourdes responsabilités de pilier régional, et elle permettrait aux Chinois de se libérer de l'angoisse et de la peur qui les hantent. L'indépendance de la Corée constitue une étape nécessaire à la paix universelle et au bonheur de l'humanité, dont la pacification de l'Asie de l'Est est un élément primordial.

Comment cela pourrait-il n'être qu'un problème futile, fruit de la seule émotion ? Un nouveau monde se déploie devant nous. L'ère de la force est révolue, l'ère de la morale est arrivée. L'esprit humaniste, affûté tout au long du siècle passé, commence à projeter sa lumière sur l'aube d'une nouvelle civilisation dans l'histoire de l'humanité. C'est un

nouveau printemps qui nous revient aux quatre coins du monde et qui pousse tous les êtres vivants à renaitre sous un nouveau jour. Si l'ère passée était une époque de froid glacial qui étouffait et figeait les coeurs, l'ère présente est une époque où l'esprit et le sang sont libérés par une brise claire et un soleil doux. Nous n'avons pas à attendre ni à hésiter car la bonne fortune est de retour sur Terre et nous allons dans le sens des courants changeants de ce monde en devenir.

Nous devons protéger notre droit absolu à la liberté et jouir pleinement d'une vie abondante. Nous devons faire preuve d'une créativité débordante pour que s'épanouisse ici-bas dans un semblant de brise de printemps une culture nationale brillante et authentique. Nous nous libérons et nous levons ici et maintenant. La conscience est de notre côté et la vérité guide notre marche. Hommes et femmes, jeunes et vieux, nous allons quitter tous ensemble ce vieux nid ténébreux et étouffant pour partager avec la Nature une renaissance heureuse et enthousiaste. Les esprits de nos innombrables ancêtres sont là pour nous aider, et toute l'énergie du monde qui arrive est là pour nous protéger. Commencer, c'est déjà réussir. Nous naviguons droit devant, vers cet avenir brillant qui s'ouvre devant nous.

Trois engagements

Un. Cette révolte qui s'exprime aujourd'hui exprime la volonté de notre peuple pour la justice, l'humanisme, la survie et l'honneur. Elle manifeste avant tout notre esprit de liberté. Jamais nous ne céderons au sentiment de rejet et nous ne nous écarterons du droit chemin.

Un. Jusqu'au dernier homme et jusqu'au dernier instant, nous défendrons avec la plus grande résolution qui soit les idées légitimes de notre peuple.

Un. Tous nos actes respecteront scrupuleusement l'ordre. Nos arguments et nos actions resteront toujours justes et honorables.

En ce premier jour du troisième mois de l'année quatre mille deux cent cinquante-deux depuis la fondation de Joseon. Signée par les représentants du peuple de Joseon :

- Son Byeonghee Gil Seonju Lee Pilju
- Baek Yongseong Kim Wangy Kim Byeongjo
- Kim Changjun Kwon Dongjin Kwon Byeongdeok
- Na Yonghwan NaInhyeop Yang Soonbaek
- Yang Hanmuk Yoo Yeodae Lee Gapseong
- Lee Myeongryong LeeSeunghun Lee Jonghun
- Lee Jongil Im Yehwan Park Juneung
- Park Huido Park Dongwan Shin Hongsik
- Shin Seokgu Oh Sechang Oh Hwayeong
- Jeong Chunsu Choi Seongmo Choi Rin
- Han Yongun Hong Byeongki Hong Kijo



열정과 화려함의 나라 멕시코

멕시코에 있는 칸쿤(Cancun)이라는 섬은 미국인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 중 하나로, 중남미 청년들의 허니문 열망지이기도 하다. 150여 개의 화려한 호텔과 리조트는 해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칸쿤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최근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멕시코의 섬 칸쿤

멕시코를 생각하면 바닷가를 빼놓을 수 없어요. 멕시코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도 '아카풀코(Acapulco)'를 추천해 주고 싶네요. 풍경이 예쁘고 술집과 클럽이 많아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또한 멕시코엔 바닷가 외에도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을 비롯한 다른 흥미로운 곳들도 많아요. 테오티우아칸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슷해요. 이는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지어졌고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 근방에 위치해 있어요. 테오티우아칸은 인간이 신이 되는 장소로 알려져 '신들의 도시'라고도 불려요. 굉장히 예쁘고 신비로우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멕시코에는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역사적 중요성·아름다움·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갖춘 마을을 '푸에블로 마지코(Pueblo Mágico)'라고 불려요. 푸에블로 마지코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100개가 넘고 마을의 건물들은 다양한 색채를 띄고 있어요. 모든 푸에블로 마지코는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틀리스코(Atlixco)가 가장 대표적이예요. 마을의 중심인 '조칼로(zocalo)'가 있기 때문이죠. 조칼로의 중심엔 커다란 네모 모양의 공간이 있고 사람들은 그 안을 산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교회를 비롯한 중요한 건물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건물은 수백 년 전에 지어졌어요.

대부분 멕시코의 음식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멕시코 음식 중 실제 멕시코 음식과는 다른 것이 많아요. '타코'가 그 예시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타코는 사실 미국이 만든 것이예요. 멕시코 전통 타코는 토파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스키프(스키프)를 넣어 만들어요. 멕시코 북쪽에서 유명한 '브리또'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달라요. 한국에선 브리또 안에 밥을 넣는데 멕시코 브리또엔 밥을 넣지 않아요. '칠라질레(chilaquiles)'도 유명한 멕시코 음식 중 하나예요. 튀긴 토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기엔 '나초'와 비슷하네 나초와는 또 달라요. 소스를 많이 넣어 촉촉하고, 스타가슴 살·사우어 크림·양파 등으로 속을 채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취향에 따라 원하는 재료를 추가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들이 가장 보편적인 멕시코 칠라질레 재료입니다. 이렇게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멕시코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우리학교의 외국어 원어 연극사(演劇史) -
③ 1971년 5월 29일,
최고의 무대에서 극찬 받은 우리학교의 외국어 원어 연극



◀남산드라마센터 공연 모습

1971년 5월 29일과 30일, 당시 최고 시설을 자랑하던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공연이 열렸다. 길버트(Sir W. S. Gilbert) 극작, 설리번(Sir Arthur Sullivan) 작곡의 (H.M.S. Pinafore)이 무대에 올랐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원어 연극 공연 수준이 오페레타(operetta, 경극(輕歌劇)) 장르까지 소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작품을 감상한 한국의 대표적 희곡 작가 이근삼은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외대의 <군함 피나포호>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연극계의 앞길에 그리 암담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유쾌하고 호쾌한 한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역시 우리의 극계도 한 번 더 넓은 껍질을 벗고 새 세대의 연극을 바라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기뻐다.”

- 경향신문 1971. 6. 2 -

이근삼은 우리학교 원어연극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뽑았다. 첫째는 실형 정신과 모험심이다. 길버트·설리번의 연극이 한국에서 공연되기는 처음이다. 우리가 아는 뮤지컬하고는 달리 이변 극은 거의 오페라와 가까워 공연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재치 있는 대사도 그렇고 내용과 주제를 노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출자며 연기자의 재능과 오랜 연습이 요구된다. 는 설명을 통해 우리학교 원어연극의 실형정신을 높여 줬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이 걸어보지 않은 길에 용감하게 발을 내딛는 모험심이 예술정신의 정수라는 것이다.

둘째, 순수한 열정이다. 그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연기와 노래가 때 묻지 않아 신선하며 성의와 연습도가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원어 대사가 좀처럼 외워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되뇌고 전문 연출가의 지도 없이 노래와 춤 연습을 반복했다. 무대 의상을 구할 길이 없으면 집에서 열기설기 바느질을 해 만들어 입기도 했다. 그리고 모여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 우리나라 대학 원어연극의 선구자이자 수십 년 변함없이 발군의 실력을 보여 온 우리학교 원어연극의 높은 성취도는 젊은이들의 실형정신과 순수한 열정이 우리학교 외국어 교육의 근성과 전통을 만나며 형성된 시너지의 결과였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학교의 학풍이 빚어낸 집념의 결과이기도 했다.

처음 두렵워하지 않은 우리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 갔다. 개교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학교의 원어연극은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세계와 보다 가까워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원어인 교수의 지도 아래 완성도 높은 극 구성과 학생 배우들의 외국어 소화 능력 및 문화 이해도까지 더해져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우리학교의 원어연극은 학술과 문화 공연이 결합한 새로운 예술 장르의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수용의 창구이자 재창조 과정이었다.

-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글로벌캠퍼스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학교 측과의 면담

이번 해 글로벌캠퍼스 상반기 정기총회가 4월 10일 오후 6시경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9개의 안건을 바탕으로, 의결원 1033명 중 806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통과된 의결을 기반으로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면담을 요청했고 지난달 23일 목요일에 백년관 10층 총장실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학교 측은 △김인철 총장△조기성 부총장(이하 조

부총장)△김수완 학생인재개발처장(이하 김 학생처장)△전종섭 교무처장(이하 전 교무처장)△전종근 행정지원처장(이하 전 행지처장)이 참석했고, 학생 측에서는 △총학생회장단△중앙집행위원장△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참석했다.

◆안건1. 총장 선출방식 재정립

한준혁 총학생회장(이하 한 회장) : 첫 번째 안건은 총장 선출권이다. 지난 번 총장님께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향이 있다고 하셨다. 학생들의 힘으로는 합의의 자리를 만드는 기회 마련조차도 어려운데 학교의 수장으로서 총장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교수 협의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법인이 개입한다면 총장 선출권 관련 논의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교수 협의회 내에서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장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인철 총장(이하 김 총장) : 여러분들이 △노동조합△학생회△교수협의회△대평의와 대화를 거쳐 선출과 임명 방식에 명분과 실리를 따지다 보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 협의회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2년 반 뒤 선거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또한 양캠퍼스 학생회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 모두의 합의와 절차가 보장되면 찬성하겠다.

◆안건2. 법인의 법정 부담 전입금 전출

한 회장 : 다음은 법인의 법정 부담 전입금 전출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학교의 재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유롭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인이라 생각한다. 법정 부담 전입금은 법으로 정한 의무 납부 금액인데 이마저도 못 채우는 것이 현실이다.

김 총장 : 재단은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다. 총장 재직 중 재단에서 한 번에 300억을 내려보낸 적도 있다. 처음 총장 때는 48억 정도, 지난해엔 60억 정도였다. 재단에서 학교에 특별 기금으로 300억을 내려보낸 적도 있었다.

예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도 만만치 않다. 이번 해에 송도에 건물을 짓는데 64억이 들었다. 그다음 송도에 세금으로 40억이 책정되었다.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하고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정문도 고쳐야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학교의 저력을 믿고 우리와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또한 지난 4년간 우리학교는 좋은 교수를 많이 임명하는 일에 매진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학생들에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들을 하겠다.

◆안건3. △스마트도서관△공학관△자연과학관△교양관 리모델링 촉구

한 회장 : 각 강의동의 리모델링에 관련한 내용이다. 글로벌캠퍼스 스마트도서관은 이르면 다음 해에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지만 공학관과 자연과학관 역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최예림 부 총학생회장 (이하 최 부회장) : 기본적으로 시설이 오래됐다. 특히 라디에이터와 같은 시설이 낙후돼 터지기 쉽다. 겨울이나 방학 중에 터지면 처리가 더욱 곤란하다. 학생들 사이에선 건물 리모델링이 힘들다면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공계 학술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는 이공계 측 입장에서 어문학과 인문경상관의 리모델링을 보면 우리학교가 인문계열만 투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 총장 : 자연과학대(이하 자대)가 공과대학(이하 공대)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 순서로 자연과학관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재 공대 시설이 훨씬 낙후됐고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대보다는 공대에 집중하고 있다.

조 부총장 : 공대는 처음에 강의동 용도로 건설했고 후에 명칭만 변경했다. 즉 내부가 학생들의 강의용 외 용도로 설계된 건물은 아니었다. 따라서 손을 볼 필요는 있다.

김 총장 : 글로벌캠퍼스의 도서관은 글로벌캠퍼스의 창립자의 유품들이 많아 도서관 겸 박물관으로 쓰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IT정보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완공은 어렵겠지만 도서관 설계나 청사진 등을 후임자에게 넘길 의향이 있다.

◆안건4. 학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기구 확충 (CCTV, 불법촬영 점검 기기)

한 회장 : 다음은 학내 안전에 관한 이야기다. 총괄지원팀을 통해 교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하지만 이보다 불법 촬영 단속에 쓰이는 기구가 교내에 없어 불편하다.

최 부회장 : 총학생회는 방학에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교내 기숙사에 불법 촬영 점검 기구가 하나 있지만 많이 낙후돼 파출소에서 불법 촬영 점검 기구를 대여해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당장이라도 총학생회가 출동해 점검할 수 있는 기구가 교내에 적어도 한 두 대는 구비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회장 : 실제로 몇 년 전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의 몰래카메라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적 있다. 교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즉시 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행지처장 : 불법 촬영 관련해 우리학교에 ADI캡스라는 경비업체가 있다. 그쪽이 CCTV부터 불법 촬영 근절까지 담당할 수도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 상태이다. 이번 해 안에 추가적인 기기 구매와 관련해 업무 조정이나 계약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안건5. 학생 요구에 의한 학사제도의 전면적 개편 (△학점 당 시수 불일치△언어강의 절대평가 전환△통번역대 전공 이수 학점 완화)

한 회장 : 다음은 강의법에 의한 학교당 개설 가능 학점 축소에 관련한 이야기다. 우선 첫째로 언어 강의 절대평가에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통번역대 전공 이수 학점 완화이다. 현재 통번역대의 총 이수학점은 150학점이다. 학생들에게 높은 전공학점 이수 요구는 큰 부담이 된다. 이수 학점은 유지하는 대신 전공과 이중전공의 학점 비율을 낮추고 자선 학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드린다.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택권 확대는 현재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말씀드린다. 두 번째, 강의 시수·학점 불일치다. 통번역대의 경우에는 8시간의 강의를 들어도 4학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표를 짜는 데 제약이 크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관해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교무처장 : 동의한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전공 이수 학점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강의 시수·학점 불일치는 완전한 해결을 위해 총장님의 도움에 더불어 노력 중이다. 학과장님과 학장님들에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문의를 드린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평가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도는 이해하지만 절대평가 확대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 특히 원어민 회화 강의에만 한정된 절대평가 시행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 총장 : 절대평가를 시행했을 시 ‘물학점’이라는 오명을 받을까 걱정된다. 절대평가를 할 경우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신 교수님들도 계신다. 이러한 난점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강의 시수·학점 일치는 환영한다. 교수님들이 1시간 강의를 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안건6.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범 학교 차원에서의 조치 시행 (△7+1 프로그램 정원 확충△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인턴십 확대)

한 회장 : 취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이 취업 면에서 큰 난항을 겪는 만큼 더 다양한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전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 학생처장 : 최근 구인, 구직 사이트인 인크루트에서 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많이 한 학생과 직무역량이 강화된 학

생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4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실습과 직무역량의 프로그램을 강화·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해에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4,300만 원을 순수 현장실습에 지원하도록 배정했다. 진로취업센터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발표한 경기도 취업 사업을 우리학교가 수주했다. 1년에 50명의 학생을 선발해 △GBT△체코△국제금융△지식콘텐츠 등 7개 학과에서 전공을 이수하고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MOU를 체결했다.

◆안건7. 인문경상관과 백년관 24시간 개방 요구

인문대학 학생회장 : 다른 단과대학 건물과 달리 인문경상관은 오후 10시에 문이 일괄적으로 잠기고 오전 6시에 열린다. 오후 9시경에 경비원분께서 △강의실△세미나실△스터디룸 등 건물 내에 있는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다.

전 행지처장 :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문경상관은 상주 경비원이 없다. 그래서 어문관의 경비원이 순회하고 있다. 그래서 오후 10시로 근무 시간을 제한했다. 경비원들도 노동자라 근로시간 제한이 있다.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경비원이 상주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는 구조이다. 학생들의 요구대로 24시간 개방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신 개방 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어떨까.

인문대학 학생회장 : 경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행정처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리자면 인문대학과 경상대학의 학생회장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다. 확대운영위원회에 속한 학과 학생회장들과 학과 사무실 수직조교가 이렇게 다른 입장에 놓여있는데 단과대학 학생회장 뿐만 아니라 학과 학생회장에게도 출입카드를 발급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본다.

김 총장 : 한 건물에 수십 명이 머물러야 하는 용무가 있다면 학교에 알려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드 키와 관련해 정말 급한 경우라면 ADI캡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에게 왜 카드가 발급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과 학생회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인문경상관 개방시간이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장이나 어문관 1층 학과 세미나실의 상시 개방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율이 엄격한 것은 단순히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회의록 출처 :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6월 3일자 수정본)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돌아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을 프로그램에 초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혔다. 인터뷰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송현정 KBS 기자와

일대일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취임 2주년 소회를 밝히며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의견△조국 민정수석의 정계 진출 논란△향후 국정운영 계획 등을 다뤘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지난 2년 간 문 대통령의 발자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사는 경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삼아왔다. 임기 초반 2년 동안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텃으며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남북 관련 국제적 이슈로는 △판문점 선언△북미정상회담△평양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었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해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첫걸음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산가족 상봉△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설치 등 한반도 평화의 대화가 시작됐음을 세계 곳곳에 알렸다. 이어 지난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간의 세 번째 회담이다.

◆북한과 남은 과제

최근 국방 관련 화두는 여러 종류의 발사체이다. 지난달 4일 북한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와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한 지 3일 후인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안을 향해 발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발사한 발사체는 사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려웠으나 9일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 고도는 낮으나 사거리가 길어 미사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한 시위에 가까운 도발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거듭한다면 대화와 협의를 국면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여야 지도부에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합의 사항으로 트럼프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식량 지원은 세계 식량 원조 기구의 발안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우리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식량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 보관비용만 약 6000억 원이 필요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기아상태 역시 외면할 수 없으며 동포에 혹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대화를 열어주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추가로 남북협력 기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대통령과 여야가 모여 협의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표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북한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다"라며 "이제는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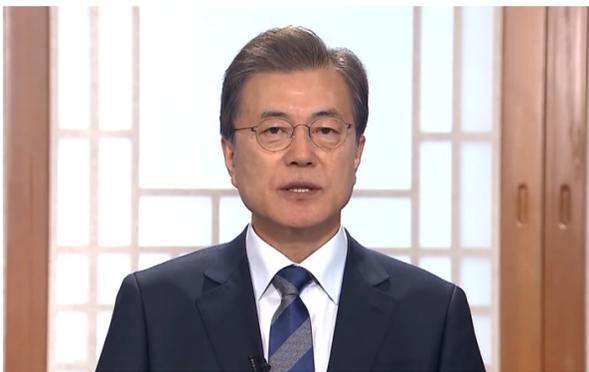
◆남겨진 국회 협치와 상생의 과제

다음은 국회 협치와 상생을 위한 △여야 간 갈등△조국 민정수석 정계 진출△청와대 인사실패를 다룬 대담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에 열렸지만 이어지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야당과 냉랭한 관계를 방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서로가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화두가 되는 패스트트랙**에 관해서는 다수의 독재 방지와 법안 상정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본인을 독재자로 칭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대화 해법을 찾을 시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만 매몰되었다는 여론에 대해 현 정부는 수사를 기화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없었음을 알렸다. 다만 그는 국정농단 혹은 사법 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기 때문에 타협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선적폐청산 후협치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적폐 수사는 앞선 정부들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정계진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계 진출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라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더불어 민정수석의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인사 검증뿐 아니라 권력 기관의 개혁도 포함된다"며 "남은 법



(출처: 노컷뉴스)

제화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끝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인사실패 및 참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사 청문 보고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채택되지 않은 장관 중 호평을 받은 장관도 있다"라며 실패라고 불리는 것은 청와대의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검증 강화를 이행할 것임을 피력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현재의 인사청문회 체계를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흠결만으로 정쟁을 벌여 능력이 있거나 흠이 없는 인물조차 청문회 자리를 고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청문회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검증은 두 단계로 나눌 것이라 전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정책 역량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회의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

문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소득주도 성장△청년 일자리 대책△새로운 산업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노동자의 사정은 개선되고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반면 고용 시장 밖의 자영업자들의 삶,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 해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대통령의 역할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회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파악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혁신 고도화 진행을 약속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 및 벤처 창업을 확대해 지원할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일자리 부문과 관련해 소방관, 경찰관과 같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해 해당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잠재성장률에 대한 대책도 다뤘다. 우리나라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계획으로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기존 제조업의 경우 혁신을 통해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2년간 소회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촛불 혁명이라는 성숙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걸어 나아가고 있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기에 앞으로 집중해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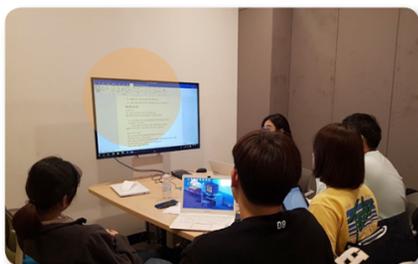
최근 북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학교 북한연구학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연구학회는 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Q1. 북한연구학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북한연구학회는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대북 현안을 비롯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해 연구합니다.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모임과 탈북청년 및 김혜숙 선생님과 토크콘서트 그리고 인권전시회 등 다양한 교내 캠페인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다양한 전공생이 모인 가운데 각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북한연구학회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학교는 다양한 언어전공과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제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국제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학교에 국제적 현안인 북한을 학술적으로 다루는 학생 자치 활동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학우들과 소통하며 북한에 대해 배우고자 설립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 활동

Q3.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해에 전시회 '아무도 없었다'를 열었던 순간입니다. △전시 자료 확보△전시회 구성△연사 섭외 요청△기획안 작성 등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교내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회 행사는 없어서 '최초'란 이름에 어울릴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교내의 학생은 물론 교직원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행사 덕분에 북한연구학회가 더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Q4.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직 크게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고발 전시회

교내 캠페인을 진행할 때 예상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우리학교 역사상 탈북자분들과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는 없어서 탈북청년 및 김혜숙 선생님과 토크콘서트에 학우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참석하신 학우분들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학우분이 저희 학회와 북한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5. 같이 활동하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머리 아프고 복잡한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스터디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스터디를 준비하는 학회원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만들며 학회 활동 열심히 해보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Q6. 북한연구학회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북한연구학회는 기본적으로 '넓게 보되 정확히 보고 바르게 전달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북 현안과 남북 외교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침마다 북한에 대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에선 △정치△경제△언어△문화 등 학회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학술 행사와 대외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지원합니다. 따라서 교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SNS를 통한 온라인 활동도 시작해서 카드 뉴스 등 콘텐츠 제작에도 관심 있는 분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6. 앞으로 북한연구학회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스터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기사와 학술 자료를 공유하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학회원들 스스로 북한 현안에 대해 깊게 탐구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북한연구학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대북현안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포스팅 활동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아프리카의 국제안보, 이대로 관철은가?



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우리국민 주 씨가 315일 만에 풀려나 지난 18일 귀국했다. 지난 12일엔 한국인 여성 한 명과 프랑스인 두 명이 부르키나파소 북부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됐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두 명이 희생돼 우리정부에서 애도를 표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에선 외국인들을 납치하는 국제범죄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전 세계 안보의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우리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이한규 교수를 만나 아프리카의 국가안보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봤다.

이한규 우리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Q1. 최근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국민이 납치되고 석방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이 지역들의 안보 위협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안보가 불안한데 사하라 지역이 심합니다. 특히 이번 언론에 보도된 나라 중 하나인 리비아는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로 지정한 흑색 경보 지역입니다. 리비아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이후 △서부통합정부 △동부군벌세력 △카다피 전 정부의 잔존세력 살라버디 민병대 등이 권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보통 마그레브라고 하는 데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등입니다. 이 중 정국이 가장 혼란하고 불안한 국가가 리비아입니다. 이에 리비아 내의 모든 외국인들은 현지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이 지역에서 여행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나라 여성이 구출된 부르키나파소는 철수 권고를 뜻하는 적색경보 지역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사막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인 사헬지역에 위치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알카에다 조직 세력이 활동하기 시작하며 부르키나파소는 위험한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곳에는 '이슬람과 무슬림 지원' (GSIM, Groupe de soutien à l'islam et aux musulmans: The Support Group for Islam and Muslims)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800여 명이나 됩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에게는 위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안보위험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하는 이유는 식민지배에 의한 잘못된 권력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884년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나누기 위해 베를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스코유한 정체성 △문화 △언어 △종족 △민족 등을 무시한 채 국경을 나눴고 반세기에서 한 세기 동안 식민지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민지배는 사회적 통합이 아닌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1956년 이집트를 시작으로 수단, 가나가 독립했고 1960년에 약 17개의 국가가 독립하며 '독립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에서의 민족 정체성 및 국민통합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와 정부가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역력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며 민주화가 단행됐습니다. 보통 민주화는 아래로부터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프리카의 민주화는 서구 열강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과 가치의 배분 문제가 일부 민족과 종족에 한정됐고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며 정부에 대한 시위 혹은 반정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Q2.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국인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는 국제범죄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는 국제범죄를 '인질 사업'이라고 합니다. 리비아의 경우 석유자원이 풍부하니까요 때문에 석유자원을 얻는 이가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부를 얻은 이는 부를 바탕으로 권력을 쟁취했고 이러한

권력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지배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세력은 테러나 납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반면 사헬 지역은 고부 가치의 지하자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과 같은 관광산업과 관광객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건너온 마약들은 사하라 사막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길목을 담당하는 이들이 반정부 단체와 이슬람 테러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사하라 사막을 지나오는 관광객들과 무역인들을 납치함으로써 테러 자금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특히 이슬람 테러집단의 경우엔 이슬람의 근본적인 법인 샤리아를 바탕으로 국가와 정부 수립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는 일종의 정치적 시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이번 리비아 석방에 있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와같은 전개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비아 한국인 석방에는 아랍에미리트가 큰 중재를 했는데 2008년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리비아가 UN으로부터 경제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리비아를 방문할 정도로 우호적입니다. 이 때문에 리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무역 및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또 한편으로 리비아의 동부에 아랍에미리트의 공군기지가 건설돼 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리비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에 이들의 친분을 외교적으로 잘 이용해 우리 교민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판의 수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친한(親韓)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리비아 사건은 외교적으로 좋은 경험과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Q4. 지난 17일, 청와대는 국제 범죄조직과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으로 돈을 건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요?

원론적으로 범죄집단과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범죄집단과의 타협은 범죄집단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에 국제사회에선 이를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에서 생각해볼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영국의 경우 자국민이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을 땐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기동력 △정보 네트워크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직접 빠르게 그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기능하더라도 여건도 부족합니다. 설령 군대가 파견된다 해도 지리적 환경도 잘 모르며 납치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테러집단에 관한 정보와 동향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수집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선진국이 수집한 정보가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서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협상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공조와 질서를 위해서는 만약 타협하더라도 독자적 결정이 아닌 서방국과 주변 국가들과 함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테러, 납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과 외교적 역량을 갖춘 타협이 적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 현지 감각이 필요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Q5.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사하라 지역엔 크고 작은 이슬람 테러집단 및 반정부 집단이 약 50개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일괄적 대처는 어렵기 때문에 공통될 수 있는 세 가지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프리카 특별관리국가 및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N 회원국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는 54개국입니다. 이 5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설치된 나라는 23개국뿐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대사가 이웃의 서니 개 나라 대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주재 우리나라 외교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반나절 혹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리비아나 부르키나파소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식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주재 대사관을 늘리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대사관 조직에 테러 담당 전문가를 신설하고 파견해 각 지역의 테러 현황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인질로 잡혔을 때 현지 사정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전문가를 통해 테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방국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도움을 청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테러의 위험과 사건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부는 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고 그곳에서 생사고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철수만을 권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컨대 리비아 통합 정부와 협력해 우리 국민의 사업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훗날 리비아의 치안이 개선된다면 다시 리비아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국민이 철수한 이후 국내에서의 생활지원금 혹은 사업 지원금도 당근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아프리카 현지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엔 △알제리의 테러연구아프리카센터 △G5 사헬 △사하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체(BOOOAS) 등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소와 지역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자세히 그 지역의 연구와 협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서구적 기준이 아닌 아프리카의 국가와 기구들이 입수 및 분석하고 있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신속한 대처방안 및 예방책을 우리 나름대로 제시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공자아카데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게 단기연수 과정 및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로 문의(Tel. 02-2173-3467~8)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www.gongja.ac.kr) 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1. 중국어 강좌

- 회화, 新HSK, HSKK, 영화중국어, 비즈니스중국어 등 다양한 강좌 개설 (수강 신청 최소 인원 3명 미만 시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수강 제도: 외대학생인 경우 수업 95% 출석 시, 수강료의 70% 환급

2. 하계 단기연수

- 연수장소: 북경외국어대학교
- 연수기간: 하계 방학 중 2주 과정
- 학점인정: 3학점(학점인정 관련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모집대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글로벌캠퍼스 재학생 또는 휴학생(선착순 40명)

3. 장학금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추천)

- 중국 국가한문(國家漢語)이 실시하는 중국 현지 연수 및 석사과정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 (추천)
- 가. 모집과정
- 1. 연수과정
- (1) 연수기간: 1학기, 1년 비정규과정
- (2) 연수분야: 어학연수
- (3) 연수학교: 중국 내 대학교(매년 중국 정부의 공고문에 따름)
- (4) 신청자격: 만 35세 이하(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만 지원 가능)

2. 석사과정

- (1) 학과: 한어국제교육
- (2) 기간: 과정 2년 정규과정
- (3) 학교: 중국 내 대학교
- (4) 신청자격: 만45세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가능)

나. 장학금 지원 내용

- 1.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전액 지원
- 2. 매월 생활보조비 지급

다. 신청 및 선발

- 1.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부터 모집(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2. 선발 방식: 면접 + 서류

4. HSK 시험 신청

- 중국 국가한문(國家漢語) HSK 시험 실시 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시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시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www.gongja.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찾아오시는 길

- 위치: 서울캠퍼스 본관 2층 220호
- 전화번호: 02-2173-3467~8
- 이메일: kongzi@hufs.ac.kr
- 홈페이지: http://gongja.ac.kr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온점

온점 혹은 마침표라 불리는 이 문장부호는 문장을 닫을 때 혹은 문장 끝에 붙여진다. 나는 학보라는 길었던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지난해 이맘때쯤 학보 97기 수습기자를 모집했다. 나는 글로벌캠퍼스 백년관에서 나가 걸던 중 수습기자 모집 현수막을 발견했다. 기자라는 막연한 꿈을 가진 나로서 '교내학보'는 꽤나 매력있었다. 당시 편집장과 문자로 몇 마디 나눈 후 밀쳐야 본전인 마음으로 학보에 지원했다. 필기 시험과 면접을 본 후 97기 수습기자가 됐다. 사실 기대도 안했었다. 어쩌면 그냥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1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에 남는다. 학보에 대한 첫 이미지는 이문동 맘모스커피 앞에서 만난 거대한 정동민 씨(18학년도 하반기 편집장)였다. 당시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갓 입국해 옷도 몇 벌 걸치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처음 본 나를 알아봐줬다. 그리고 윤아영 씨(외대학보 97기 기자)는 아직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대화로 나를 놀리곤 한다. "입국하자마자 오신거예요?"라며 "저 같으면 안왔을텐데"라는 아영 언니의 말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외아조웃음"라는 대답을 전했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답지 않은 대답이다. 이렇게 내 정기자 생활은 시작됐다.

정기자라는 직으로 보면 학보에서의 첫 학기는 열정녀 그 자체였다. 내 학교생활에서 1순위는 학보였다.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 친구들이 나에게 몸이 3개 정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열심히 했다. 다가가기 쉬운 주제부터 시작해 예민한 주제까지 모두 다뤄봤다. 맑은 기사의 양이 적은 날은 사회·문화면 원고지 20매 정도의 기사정도였고, 많이 맑은 날은 스카버스트리드단면 보도△기획기사△지구촌을 읽다△외대사△독자위원회까지 맡았던 적도 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다. 아영언니한테 했던 말이 오글거리지만 내 진심이었던 거 같기도 하다.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하는 게 맞고 학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나왔던 것이다.

차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했다. 차장이라는 직책 뿐만 아니라 2학년이라는 별칭까지 따라왔다. 2학년이 되어서는 1학년 때보다 과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다른 교내 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번 한 학기는 온전히 학보를 위한 학기였는데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수월했다. 한 학기 해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저번처럼 사서 고생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호에 비해 사서 고생하고 싶었던 호를 뽑자면 이번 호였다. '오랫동안 사서 고생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괴롭히고 싶어서'라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마무리하는 항상 아름다워야한다'는 나의 가치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학보 생활의 마지막 호는 다른 어떤 호보다 멋있게 장식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호 기획 주제는 이번 학기 기사 주제 중 가장 많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다. 감정도 많이 낭비했다. 멋있게 해내고 박수 받으며 떠나고 싶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기획 주제는 사실 이번 호에 실지 않았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한 가지 이유만 적자면 아직은 내가 나를 망치는 데 겁이 났던 거 같다. 그 주제는 남을 망치는 동시에 나까지 망치는 주제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이번 학보에 쓸 수 없었지만 언젠가 기성언론의 언론인이 된다면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다.

이렇게 지난 학보 생활을 되돌아보면 나에게 학보라는 문장을 마무리 하기 위한 문장부호는 온점만이 아닌 거 같다. 학보는 나에게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다양한 색을 가진 물음표이자 느낌표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은지 기자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성장에 대한 고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꽤 도발적인 문장이다. 시작의 느낌을 주는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라니. 상쾌한 햇살을 맞으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라고 응원하는 다른 문장들과는 사뭇 다르다.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가 작성한 칼럼을 모아둔 이 책은 상식을 깨는 듯한 문구로 내 호기심을 자극했고, 첫 장을 넘기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책에는 그간 저자가 써왔던 여러 칼럼이 담겨있다. 저자가 영감을 받은 소재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서 일상적인 설거지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에서 성장까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그중에서도 성장에 대한 글이 가장 와 닿았다. 대학교 2학년으로서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에 마음이 불편했던 참인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어른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시아의 확대가 따르지 않는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본인이 본래 갖고 있던 시아의 폭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심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편, 아무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 '현상 유지'의 상태라면 더 이상 성장의 구실이 없다. 어떤 상처도 받지 않거나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용기가 없어 망설임'이다가 끝

낸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살다 보면 많은 일이 벌어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받기도 한다. 상처를 받은 순간은 아프고 괴롭다. 하지만 그 순간을 딛고 일어난다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통의 견뎌내고 그 상처를 꼭바로 응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날이 쌓여간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내가 내리는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끝없는 의문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을 가져보자. 분명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언제나 이론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토이스토리3]
모든 것에 진심 어린 안녕을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장난감의 비밀스러운 모험을 그려낸 작품으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총 세 편의 시리즈 중 마지막 작품인 토이스토리 3은 장난감 주인공인 '앤디'가 커버넌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앤디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어느덧 훌쩍 자라버린 앤디는 기숙사로 가져갈 짐을 싸려 한다. 앤디는 필요한 짐을 하나씩 챙기지만 그 속에 장난감은 없다. 어렸을 적 들도 없는 친구였던 장난감 '우디'와 다른 장난감들은 더 이상 앤디와 함께할 수 없단 사실에 슬퍼한다. 그러나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난감들은 엄마의 실수로 보육원에 기증된다. 장난감들은 버려졌던 배신감과 실망감에 보육원 생활을 답답하게 받아들여기로 한다. 새로운 일상을 기대했으나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장난감은 소중하게 다뤄던 앤디와 달리 보육원 아이들은 거칠고 난폭했다. 이러한 생활에 점차 지쳐가던 중, 장난감들은 보육원 장난감 세계 속 숨겨져 있던 음모와 마주한다. 게다가 앤디는 자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 역시 알게 된다. 장난감들은 목숨을 건 모험을 펼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왔으나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앤디는 아직 장난감을 사랑하지만, 이미 커버넌트 예전만큼 좋은 친구가 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장난감은 주인과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앤디는 장난감들을 '보내'에게 선물하기로

하고 장난감들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쌓았던 추억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작별을 한다.

인생은 늘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 불린다. 설레던 만남 끝에 있는 이별은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영원한 진리를 알면서도 끝은 언제나 아쉽고 아프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시작엔 끝이 있던 사실을 알기에 만남과 이별, 그 사이는 더욱 소중하다. 작은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의 기쁨을 오롯이 누려야 한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표현해야 한다.

어느새 6월의 시작이다. 색색으로 빛났던 꽃이 진 자리엔 녹음(綠陰)이 들어섰다. 만남과 이별도 이러한 자연의 이치와 같다. 어떤 것도 영원하진 않다. 봄이 떠난 자리에 여름이 차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오듯,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만남을 거쳤고, 또 그만큼의 이별과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순간에 늘 정성을 다한다면 이별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을 것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는 속담처럼 굳어진 말이다. 이처럼 잘 준비된 이별은 다가올 만남을 위한 초석이 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언젠가 우리 삶에도 이별이 스며올 것이다. 모든 이별이 안녕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안호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1032호 학보를 읽고

황경민(중국·중언문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학보를 읽고 축제 섭외의 가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 '영어대단장'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속한 'QZY'라는 팀이 섭외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최근 대학교 축제에 큰돈을 들여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있는 가수가 섭외 목록에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섭외 철회를 요구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애먼 데에 쓰이지 않게 축제 준비에 꼼꼼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난 뒤 느낀 점이다. 본인 역시 무조건적인 절대평가제 전환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학교 특성상 언어 전공이 많아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언어를 미리 접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 실력 차이의 폭이 크고, 특수어과 의 경우 분반 제도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절대평가제 이행을 바라고 있다. 현재 상대평가 체제 아래에선 학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심한 성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러나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모두가 좋은 학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상대평가제의 단점인 재수강생과의 형평성, 근소한 차이로 갈리는 성적에 대해 학생과 교수진이 함께 답문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절대평가제가 시행되면 성적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으면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다룬 기사도 흥미로웠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지난달 9일에 일어난 북한 미사일 발사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기사에서도 말했듯,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외대학보 1032호를 읽고

정민주(국제지역·한국 1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지난 1032호는 △축제 관련 논란△글로벌캠퍼스 '감사위원회' 부결△성적 평가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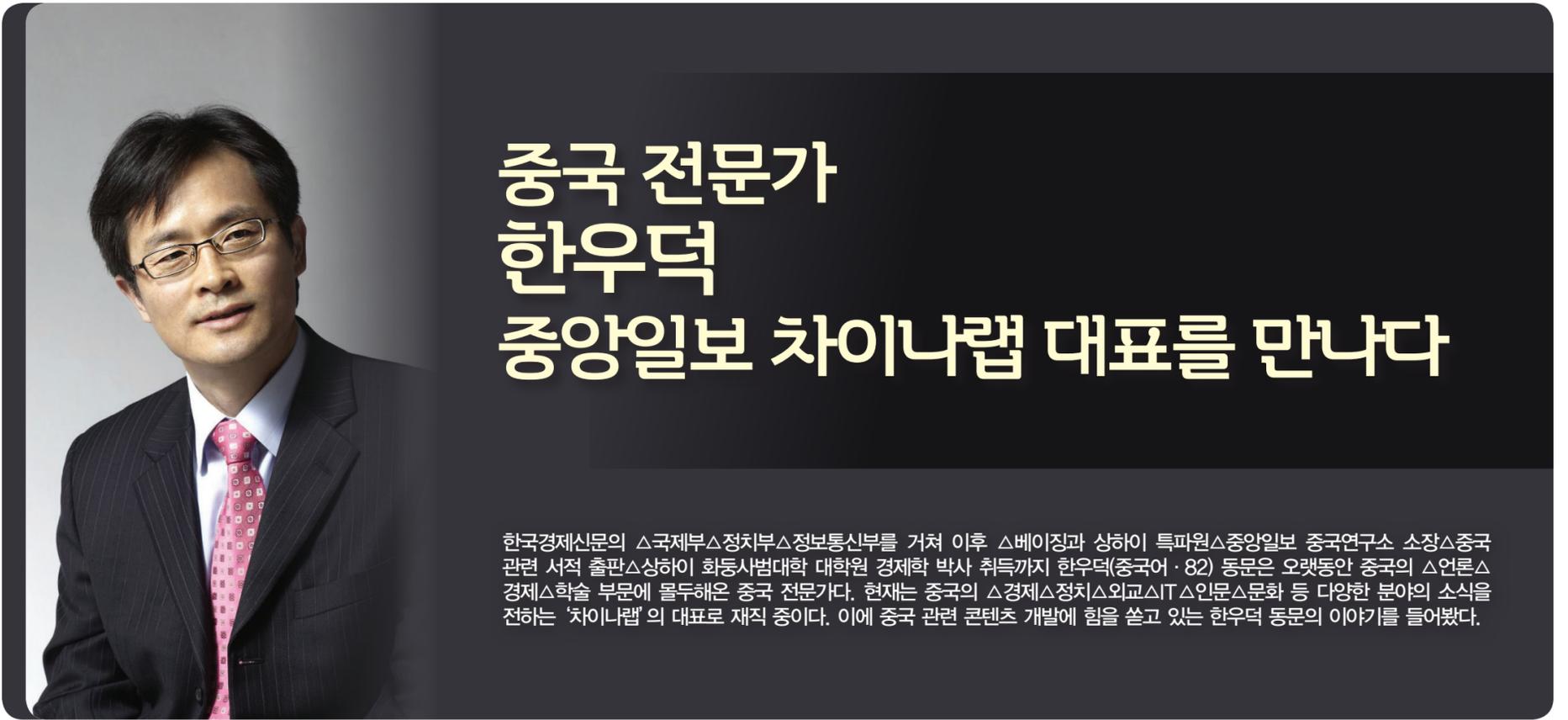
축제 관련 기사에서는 글로벌캠퍼스 축제에서 배부한 꽃 인형 악세사리 논란과 초대 가수 공연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입장과 더불어 총학생회(이하 총학) 입장문 전문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번 논란에 대한 총학의 대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학의 대처 이후의 상황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도 추가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글로벌캠퍼스 '감사위원회' 출범 무산을 다룬 기사에서는 △기존 학생자치기구와 감사 체계△확대운영위원회 개최△감사위원회 세칙△감사위원회에 대한 총학의 의견△단과대학 및 학과 회장들의 의견△학생들의 반응 등 감사위원회 안건 부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감사위원회 안건 부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크고 작은 논란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사는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

각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총학 행보와 관련해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우리학교의 성적평가방식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B유형은 상대평가, C유형은 Pass/Fail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교수처장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성적평가방식△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한 의견△현재 성적평가방식의 수정 계획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학교 양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적평가방식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보기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 입장과 대비되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만 그쳤다는 점과 타 대학들의 성적평가방식을 통해 우리가 개선돼야 할 방향 제시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 외에도 우리학교에서 개최된 많은 행사들의 기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한 미사일의 의미'와 '현재 진행 중인 마중 무의의 '치킨게임', 과연 그 결과는?' 등의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특히 위의 기사들은 전문 용어 설명과 함께 사회적 이슈를 다뤄줌으로써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중국 전문가 한우덕 중앙일보 차이나랩 대표를 만나다

한국경제신문의 △국제부△정치부△정보통신부를 거쳐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 특파원△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중국 관련 서적 출판△상하이 화동사범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취득까지 한우덕(중국어·82) 동문은 오랫동안 중국의 △언론△경제△학술 부문에 몰두해온 중국 전문가다. 현재는 중국의 △경제△정치△외교△IT△인문△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전하는 '차이나랩'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에 중국 관련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한우덕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입학 당시 우리학교 중국어과로 진학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중국어과에 입학할 당시엔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것은 1978년인데, 제가 입학했던 1982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중국의 필요성이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홍콩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던 지인이 중국의 전망이 괜찮아 보이니 중국어를 공부해보라고 추천 해줘서 중국어과로 진학하게 됐습니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어만으로는 취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니다. 따라서 대학 시절에는 영어나 경제학 등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필요했고 저는 경제학을 추가적으로 공부했습니니다. 이후 상하이에서 특파원으로 있을 때도 상하이 화동사범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니다.

Q2. 중국과 관련해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일보사의 중국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했습니니다. 중국연구소는 중앙일보에 속한 중국 분석 연구소이며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고 여러 대외활동을 진행하는 사내기관입니니다. 특히 중국의 청년 공무원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교육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니다. 중국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민간외교를 담당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니다. 지금은 중앙일보 산하기관인 차이나랩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니다. 차이나랩은 중앙일보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설립한 조인트벤처기업*으로서 중국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진행습니니다. 또한 네이버에 중국 관련 면이 별도로 있는데 이를 제작 및 관리하는 것 역시 저희가 담당습니니다. 더 나아가 차이나랩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및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니다. 여기엔 △전자 상거래△중국관련 컨설팅 진행△비즈니스 업무△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교육△기타 중국관련 업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니다.

*조인트벤처기업: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 구성체

Q3. 중국에서 기자(특파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약 8년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

에서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니다.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3년부터 3년간 상하이에 서 상하이리포트 기획시리즈를 진행했던 것입니니다. 상하이 리포트 시리즈에 대한 국내반응이 좋았으며 당시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니다. 또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사회△경제적 사건을 우리나라에 전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니다.



▲베이징 아주문명대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우덕 차이나랩 대표

Q4. 중국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기자에게 콘텐츠란 기사작성을 의미습니니다. 특히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차이나랩은 중국에 관련된 기사나 동영상 제작을 담당습니니다. 처음에 중국 관련 콘텐츠, 즉 기사를 쓰기 시작했던 것은 전공이 중국어이기 때문입니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베이징에서,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상하이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중국과 관련된 여러 기사를 작성했습니니다. 또한 2002년 이후엔 △중국의 13억 경제학△경제특파원의 신중국 견문록△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중국증시 콘서트△중국합정 등 중국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니다.

Q5. 중국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선 일상에서 중국 관련 서적이나 영화를 자주 접하며 중국과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습니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특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에 △지리적△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습니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끊임 없이 중국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습니니다. 우리학교의 후배

Q6. 중국전문가로서 전망하는 중국의 경제전망은 어떤가요?

중국은 197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니다. 처음엔 외국의 선진화된 기술을 따라하는 데 그쳤으나 현재는 중국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습니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미국을 자극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미국은 전면적인 대중무역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니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망가진다고 장기간의 침체를 겪지는 않을 듯 습니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스스로 경제적위기를 버틸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니다. 말이 무역 전쟁이지 사실 중국은 일방적인 공격을 받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버텨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등 자체적 힘을 길러야 습니니다. 중국은 희토류**가격의 인상을 통한 경제적 보복 등의 여러 수단을 갖고 있습니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며 미국에 압력을 가해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게 필요습니니다.

**희토류: 물질의 지구화학적 특성상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는 산출되지 않고 광물형태로 희귀해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

Q7.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픈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중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은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습니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업무적인 목표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스스로 재밌는 것을 찾아나서고 싶으나 아직 그게 뭔지는 잘 모르습니니다.

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니다. 이에 더해 미래에 어떤 분야에 자리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습니니다. 중국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해 △정치△언론△경제△행정 등 중국과 관련된 세부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습니니다. 물론 이러한 전문가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어 실력과 활용능력이 필요하기에 언어 실력을 갈고 닦는 것 역시 필요습니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습니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지식이 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습니니다. 우리학교는 앞서 말한 부분에 맞춰져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 또한 훈련이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니다.